



7.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역사는 인간만이 가진 것으로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사실이 역사가 되지는 않는다. 역사는 과거의 모든 사실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특정하게 선택된 사실들의 의미를 인과적으로 연결한 논리적 구성물이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역사로 기록되는 이유는 이 사실이 조선의 개국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창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사물이 발견되고, 이를 통해 조선 개국의 과정이 다른 방향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다면 위화도 회군의 역사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과정에서 자료가 새롭게 선택될 수 있고, 역사적 의미 또한 바뀔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선택은 언제나 역사가에 의해 결정되며, 해석은 필연적으로 의미 해석이므로 역사는 그냥 주어진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인 셈이다. 역사가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하지만 소설가의 상상으로 쓰인 역사 소설과는 다르다. 역사와 역사 소설은 모두 선택된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같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르다. 역사 소설은 선택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에 근거한 '문학적 허구'를 펼쳐가지만, 역사는 사실을 조사한 후, 탐구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거친다.

- ① 역사 서술 과정에서 자료가 새롭게 선택될 수 없다.
- ② 역사가에 의해 선택된 자료는 그냥 주어진 자연 현상에 해당한다.
- ③ 역사는 한번 기록이 되면 역사가가 부여한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
- ④ 역사 소설과 역사의 가장 큰 차이는 '문학적 허구'의 유무에 있다.

8.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은 결국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흠스가 말했듯이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타인과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지. 을: 하지만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 그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였다고 봤지. 오히려 사회와 제도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라고 했어. 병: 나는 이기적인 본성과 선한 본성 모두 인간 안에 공존한다고 봐. 프로이트처럼, 이드와 초자아는 서로 같지만 동시에 공존하는 거야. 인간은 본능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존재라고 생각해. 정: 인간이 본능적인 존재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나는 프로이트의 심리적 갈등이 아니라 니체의 권력 의지에 더 주목해. 인간은 자신을 초월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확장하려고 하지. 결국,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기보다 능동적 창조자에 가깝다고 봐.

- ① 갑과 을은 인간 본성을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선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립된다.
- ② 을과 병은 사회적 규범이 인간 본성을 억압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 ③ 병과 정은 인간이 본능적 충동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 ④ 갑과 정은 인간 본성을 고정된 속성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9.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한 것은?

'망막'은 여러 층의 막으로 이루어진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다. 이곳에 여러 신경세포와 광수용기 세포가 있으며, 빛을 감지하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여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한다. 눈과 같이 빛을 감지하는 기관은 빛을 흡수하는 색소분자를 가진 광수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광수용기는 빛 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빛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의 광수용기의 종류로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있다. 전자는 빛에 민감하되 색을 분별하지 못하고, 후자는 가시광선의 빨강, 초록, 파랑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세포들이 각각 존재하여 색을 분별할 수 있다. 또한 전자는 망막의 주변부에 주로 분포하고, 후자는 망막의 중심부에 많이 분포한다.

이뿐만 아니라, 막대세포는 빛에 대한 민감도가 뛰어난 로돕신이라는 광수용 색소가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0.1 Lu x 정도의 약한 빛을 감지할 수 있다. 로돕신은 어두운 곳에서 옙신이라는 단백질에 레티넨이 결합하여 형성되지만, 빛이 들어오면 즉시 옙신과 레티넨으로 분해가 된다. 이때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여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된다. 게다가 레티넨은 비타민 A가 바뀌어 만들어지는데, 밝은 곳에서는 옙신과 결합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옙신과 결합하여 로돕신이 된다. 이렇게 로돕신의 합성과 분해가 반복되면서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단, 분해된 레티넨은 망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되므로 꾸준히 비타민 A를 섭취해야 한다.

- ① '광수용기'는 전기적 신호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 빛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②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새로운 옙신의 생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야맹증을 겪을 수 있다.
- ③ 밝은 곳과 달리 어두운 곳에서는 옙신과 결합하지 못하여 로돕신을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 ④ 막대세포와 달리 원뿔세포는 가시광선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세포들이 각각 존재하므로 색을 분별할 수가 있다.

10. (가)~(라)의 고쳐 쓰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서 교육의 지표로 삼자.  
 (나) 그녀가 있는 팀은 우승팀다운 면모를 발휘하였다.  
 (다) 영희는 어제 술이 취해서 넘어진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라) 학문을 하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 ① (가): 관형격 조사를 연속적으로 쓰면 중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교육하는'과 같이 고쳐야 한다.
- ② (나): '발휘하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기 때문에 관형어가 아닌 부사어가 필요하므로 '우승팀답게'로 고쳐야 한다.
- ③ (다): 서술어 '취하다'는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므로, '술이'가 아니라 '술에'로 고쳐야 한다.
- ④ (라): 부사어와 서술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으므로, '모름지기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